



◇동백에 묻힌 백련사는 남도 사찰 중에서 꽃, 바다, 단아한 절집 등이 조화를 이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 봄물 오른 남녘산사 동백 나들이 '초청장'

백련사 동백림-대둔사 입구 숲길 '절경'

봄바람에 불이 뜬 시골색시 같은 꽃. 활짝 만개도 못한채 목을 꺾고 떨어져 젖빛 겨울땀을 발갛게 꾸며 놓는다. 필 때보다 필 때가 더 아름다운 동백. 허남 미황사에 동백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달마의 눈처럼, 부도전으로 가는 길과 삼성각 주변에 살포시 얼굴을 내민 동백의 향연이 어찌 봄이 오랴. 여수의 향일암과 진도의 쌍계사에는 벌써부터 동백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객들을 맞고 있다.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 남도의 사찰들은 온통 절경을 이룬 동백꽃 물결로 일렁일 것이다.

사찰 주변에 많이 피는 동백꽃은 동장군의 위세가 남아 있을 때 봄의 전령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뒤늦게 피어난 여느 꽃들이 모두 지고 난 다음까지도 꽃망울을 달고 있다. 목이 썩인 뒤에도 다시 이끼 낀 돌 위에 피어나 한참 동안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동백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꽃이 피는데 봄에 피는 동백을 춘백이라고 한다. 동백꽃은 보통 흙중백과 겉동백이 있는데 7~8조각으로 갈라진 흙중백은 주로 겨울에 피며, 꽃잎이 많게는 50조각으로 갈라진 겉동백은 주로 봄에 핀다. 남도의 사찰은 이런 동백이 있어 더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우니지도 모른다.

그 중 고려말 천태종 부흥의 본산이었던 백련사의 동백림(한연기념물 151호)은 남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7천여 그루에서 피어나는 동백꽃들



◇꽃망울을 띄운 미황사 동백.

은 강진만 바다. 그리고 단아한 절집과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이 절경을 혼자보기 아까워사실까, 백련사는 동백꽃이 만개하는 4월 8일 제1회 동백축제를 연다. 꽃도 보고 동백화전 등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근에 있는 다산초당 주변에도 동백꽃은 피어난다.

해남 두문산 대둔사 주변의 장춘계곡도 남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로 유명한 곳. 서산대사가 중창한 이후 선종의 총본산이 되었으면 대둔사를 둘러본 뒤, 표충사

에서 서산대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지암으로 발길을 돌린다. 숲 속의 동백꽃에 매혹돼 꿈 같은 길을 20분정도 걸다 보면 어느새 붉은 꽃이 화사하게 핀 동백나무 아래 단아한 일지암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둔사에서서는 이달 말이 되어 활짝 핀 동백을 볼 수 있다.

대둔사 재무국장 원우 스님은 "동백나무는 조경은 물론 봄에 잘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화재 방지의 목적으로 사찰 주변에 많이 심어진 것 같다"며 보통 "3월 중순이면 만개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에서 가장 늦게 동백이 피는 선운사에 들어서면 얼마 전 타계한 미담 서정주 시인의 시비(선운사 동구)가 나그네를 먼저 맞는다.

"선운사 골짜기/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디/ 그곳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디"

미담이 노래했듯이 선운사는 동백꽃이 있어 완성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백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잠깐 밖에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올해 선운사의 동백은 4월 20일을 전후해 필 것 같다.

김주익 기자 (kim@buddhapa.com)

### 그 절에 가고싶다

#### 선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는 조선 후기까지 50여 개의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현재는 도솔암, 동운암, 첨당암, 석상암 등 4개만이 남아있다. 선운사에서 꼭 봐야 할 곳은 추사가 쓴 백파대사적비와 체제공이 썼다는 설파대사사적비이다. 이 중에서도 백파사적비에 새긴 행서체 글씨는 추사 말년의 최고 명작으로 꼽힌다.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며 불꽃 튀는 사상 논쟁을 벌였던 백파의 죽음 앞에 숙연하게 고개 숙인 추사의 문장을 감상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22번 국도를 타고 고창쪽으로 가다 삼인동에서 선운사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면 된다.



◇탑과 대웅전이 어우러진 선운사경내.

#### 대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둔사는 조선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하며 법맥을 이어온 조선훈교의 중심도량이다. 한때 대종사로 불리기도 했던 대둔사는 초의선사가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유불선 사상과 글(詩)·글씨(書)·그림(畵)·차(茶) 등의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일주문을 넘어서면 서산·연담·초의스님 등 대둔사가 배출한 고승 대덕들의 유골을 모신 부도밭이 첫 마중을 한다. 50여기의 부도와 14기의 탑비는 근대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짐작케 한다. 서산대사의 친필을 비롯해 초상화와 금판가사, 발우 등의 유물들이 전시된 성보박물관과 서산사명·처영 스님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표충사도 볼만하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나와 해남 읍내까지의 서대둔사 이정표를 보고 16㎞정도 들어가면 대표소가 나온다.



◇대둔사 입구에서 있는 일주문.

#### 미황사

미황사는 위도상 우리나라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절이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수려한 달마산 기슭에 위치한 미황사는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연담 유입 스님이 '수륙도량'과 '침학법석'을 개설하고 '임하록'을 탈고한 곳이다. 조선시대 중·후기에 걸쳐 웅성을 거듭하다 1백년 전 주지 흔허 스님이 중창 불사 모금을 위해 스님 40여명과 함께 완도와 황산도를 가다 조난을 당한 뒤 퇴락했다. 10년 전부터 중창불사를 한 미황사에는 현재 대웅보전(보물 947호)을 비롯해 응진당(보물 1183호), 명부전, 삼성각, 달마전 등이 있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나와 해남을 거쳐 완도 방향으로 가다 완도를 25㎞ 남겨 놓은 지점에 있는 월송주유소에서 미황사 이정표를 보고 10㎞정도 더 들어가면 된다.



◇달마산을 배경으로 한 미황사 대웅전.

#### 백련사

백련사는 고려 후기 서민불교운동의 중심지로 고종 19년(1232)에 잠화와 정토(淨土)를 강조한 '백련결사운동'을 주창했던 곳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8대 국사를 배출해 명찰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대웅전 내부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중 중앙 본존불이 석가여래이기 때문에 좌우에는 보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여래상을 안치한 점이 특이하다. 또 백련사 사적비(유형문화재 137호)는 이수 부분에서 반결(變結)하는 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등 조각기법이 전통을 잘 고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나와 강진 읍내로 와서 18번 국도를 타고 해남 쪽으로 2㎞쯤 가다가 화명리 추도 삼거리에서 좌회전한다. 여기서 백련사 이정표를 따라 6㎞정도 간 뒤 갈림길에서 우회전해 조금만 오르면 백련사 입구 주차장이다.



◇백련사 주불전인 대웅보전.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두릅전 두부전골

그가 그 곳으로 돌아오는 데는 4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인천 감옥을 무사히 탈출하여 피신하던 때, 머리에 굴갓 쓰고 염주 걸은 채 끌어오르는 우국충정을 억누르면 사미승의 신분에서 한나라의 주석(主簿)이 되어, 그가 돌아온 것이다. 도망치듯 빠져나간 산문(山門)이었는데 이제 그는 환영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마

곡사로 돌아온 것이다. 48년 전, 자신의 손때 묻은 밭고며 목박, 무쇠솥, 후원의 살림들은 변함이 없었다. 바뀐 것이라면 김창수라는 지명수배자에서 이 땅의 희망으로 우뚝 서 돌아온 그의 이름이 김구라는 것과 열혈 청년이 이제는 빈백의 온갖 풍상을 겪은 민중의 지도자로 변신한 것 빼고는 산현의 모습은

### 만성두통 · 어깨결림에 효과

그때 그대로였다. 마곡사 요각실에서 하룻밤은 노객의 평생에 가장 편안한 관세음보살의 따뜻한 품 속과도 같은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었던 것이다. 김구 선생은 생전에 유난히 두릅과 모과를 좋아하셨다. 대식가였던 그는 한 때 두릅향에 취해 공양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두릅은 비록 가시가 비록겨려 못생겼지만 그 새살은 얼마나 부드럽고 향기로운지 모르오?' 그는 임정요인들에게도 춘삼월이 오면 마곡사 뒷산의 두릅나무 이야기를 자주 했다. 가시 돌린 두릅나무를 좋아했던 것은. 험난했던 당신의 삶 때문이었을까. 김구 선생을 생각하며 새봄에 돌아오는 두릅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당노병과 신장염, 만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 등에도 좋은 두릅은 봄철 짝이 나기 전의 두릅 결집이 좋으며, 식전 식후에 자주 복용하면 좋다. ■약성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 별한식단이 있다>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두릅 100g, 두부 100g, 밀가루, 은행, 미나리, 다시마, 표고버섯, 볶은 소금, 청·홍고추, 들기름, 간장  
 요리법 ①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다시 국물을 만들고 다시마와 표고는 먹기 좋게 썰다. ② 두릅은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밀가루를 얇게 입혀서 노릇하게 지져낸다. ③ 두부는 0.5cm두께로 썰어 소금을 조금 뿌린 후, 들기름에 노릇하게 지져낸다. ④ 전골냄비에 다시 국물을 붓고 가운데에 다시마와 두부를 둘러 앉히고 그 위에 두릅전, 주위에 은행, 미나리, 고추를 장식해서 한번 끓인 후, 불을 줄어 간장을 넣고 끓여낸다.  
 효능 당뇨에는 봄철 짝이 나기 전의 두릅결집을 식전 식후에 먹으면 좋다.